월요광장

'광주향교'를 유교문화 특구로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조선 500년은 자타가 공인하는 유교국가였다. 유학을 진작시켜 효제충신(孝悌忠信)의 위대한 예의 국가이자 도덕 국가를 구현해 내자는 것이 통치의 목표였다. 그래서 서울 문묘(文廟)에는 성균관이 세워졌다. 전국의 모든 고을에는 유학을 가르쳐 선비를 양성하는 학교인 향교(鄕校)를 세웠다.

호남의 웅도(雄都) 광주에는 광주향교(光州鄕校)가 세워졌다. 조선 초기 처음 향교가 세워진 곳은 무등산 자락의 장원봉 아래였으나, 성종 19년(1488) 큰 홍수로 인하여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의 대문호요, 대제학을 지낸 허백당 성현(成俔;1439-1504)이 61세 되던 1500년에 지은 '광주향교중수기'라는 글에 보인다. 당시의 현감(牧使라는 호칭도 있음) 권수평(權守平)이라는 어진 수령이 장원봉 아래서 읍내로 옮긴 향교가 적당한 장소가 아니어서 읍내에서 서쪽 이리(二里:지금의 향교 위치)로 옮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몸소 유생들을 인도하여 경학을 담론했다"(親引儒生 談論經學)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유교 학문의 강학이 이뤄졌음을 알게 해 준다. 향교의 규모도 자세히 설명했다. "대성전에 공자와 공문 십철(十哲), 70자(七十子)를 모셨으며 대성전 앞에 명륜당을 세워 강학의 장소로 삼았다. 동과 서에 집을 지어 동쪽은 교관(敎官)들이 거처하고 서쪽은 이름을 사마재(司馬齋)라 하여 고을의 생원·진사들이 학문을 연마하게 했다. 동재와 서재는 유생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삼았다." 그 밖의 부속건물까지 합하면 무려 50여 칸이나 되는 장대한 모습의 향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결과 문풍(文風)을 크게 떨치고 덕교(德敎)가 더욱 밝아졌으며 고을의 우수한 인재들이 그곳에 노닐며 덕성을 도야하고 행실을 닦아 광주향교는 모든 향교 중 으뜸의 자리에 올랐다고 했다. 성현 이후로 광주와 호남 출신의 대학자들 모두가 광주향교에 대한 글을 남겼다. 광주 출신 조선의 대학자 고봉 기대승은 1563년 '대성전중수상량문'과 '광주향교중수기'를 지어 권수평의 훌륭함을 칭송했다. 또한 "학교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인륜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인륜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면 국가가 의뢰하여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향교의 강학이 왕성해져야만 인륜이 밝혀져 문화와 문명국가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회재 박광옥(朴光玉)은 당대 광주의 큰 학자로 음기(陰記)를 지어 광주향교의 우수함을 칭송하였다. 영광 출신으로 대표적인 유학자인 수은 강항(姜沆) 또한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광주향교 복원 상량문에서 눌재 박상(朴祥)·고봉 기대승 같은 광주 출신 대학자들이 광주가 배출한 인물로 광주향교의 교화에 힘입은 바가 컸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기대승의 7대 후손인 겸재 기학경(奇學敬)은 문과 급제로 홍문관 교리에 오른 당대의 학자로 '광주향교중수기'를 지어 향교의 역할을 논했다. 조선 최고이자 대표적 성리학자인 장성 출신 노사 기정진(奇正鎭)은 1854년 중수한 새로운 향교에 '광주문묘중수기'를 지어 "오늘날 광주는 선현의 유풍이 있고 뛰어난 인재들이 배출되어 호남의 으뜸 고을이 되었다"라는 칭송을 바쳤다. 광주향교는 대단한 향교다. 조선의 석학들이 시대별로 놓치지 않고 향교에 대한 희망과 소원을 말했다. 성현·기대승·박광옥·강항·기학경·기정진. 그들이 누구인가? 조선을 대표하는 대학자들 아닌가. 이들이 모두 광주향교에 대한 글을 남긴 것이다.

다산 정약용도 '목민심서'의 '흥학'(興學) 편에서 권수평을 칭찬하면서 광주향교를 찬양했다. "권수평으로 인하여 유풍이 크게 진작되고 문교(文敎)가 더욱 밝아졌으며, 단정하고 발전한 선비들을 골라 교관으로 삼아 학생들을 통솔케 하여 예의 바르게 가르쳐 주니 생도들이 염치(廉恥)를 기를 줄 알았다"(由是儒風大振 文敎益明 簡選端方 使爲齋長 以作表率 待之以禮 養其廉恥) 광주향교가 호남의 상징적인 향교로 그곳을 통해 호남인들이 예의 바르고 염치를 아는 훌륭한 선비의 고을로 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오늘의 세상. 50칸이 넘는 광주향교를 예전대로 복원하여 유교 문화의 전당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효제충신의 인륜 도덕이 살아나고, 부끄러움과 염치를 알아 도덕적인 인간이 양성될 수만 있다면, 그때에는 참으로 이 나라가 문화와 문명국이 되지 않겠는가.

성현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자. 동재와 서재는 대학생들의 연구실이라면, 사마재는 진사·생원, 즉 대학원생들의 연구실이었다. 흔적도 없는 사마재를 복원해서 수준 높은 유학 공부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한다면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향교가 될 것인가. 광주향교를 유교문화 특구로 지정해서, 이제라도 타락한 속세의 도덕성을 살려 내는 일에 행정 당국이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호남인들의 시대적 과제라 하겠다.

기 고

백범의 숨결 스민 광주 '백화마을'

장 선 미
광주백범기념관 기획실장

광주 백범기념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별명이 '문지기'이다. 김구 선생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을 두드리며 '가장 낮은 역할인 문지기'를 자청한 것이 별명을 짓게 된 배경이 됐다.

6명의 문지기들에게는 포부가 있다.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택시 기사들이 광주 백범기념관의 위치를 모두 알게 하는 것과 지역민들이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다면 광주에는 백범기념관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올해 개관 5주년을 맞은 광주 백범기념관을 두고, 광주에 '왜' 백범기념관이 있는지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다. 김구 선생의 고향이 '광주'라고 말하는 분, 독립운동을 광주에서 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광주와 김구 선생은 인연이 있다. 김구 선생은 광주를 두 번 방문했다. 1898년과 1946년이다.

김구 선생이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 때는 1898년이었다. 김구 선생은 1896년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로 일본인 쓰치다를 처단하였고, 이로 인해 인천 감옥에 투옥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 1898년 3월 탈옥하여 정처 없는 도망자의 길을 떠났는데, 이때 잠행했던 곳이 전라도였다. 특히 보성 쇠실마을에서는 40여 일을 은신하였다. 현재 보성 쇠실마을에는 1898년에 김구 선생이 은거하셨던 '김광언 집'이 보존되어 있고, 그 옆으로 '백범 김구 은거기념관'이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다.

1898년 잠행 중에 광주를 들렀다. 백범일지에 '광주 역말이란 동네에 들어가니 시골 동네에 몇 백 호인지를 모르나 동장이 7명이나 일을 본다 하는데… 광주·나주·순천·대명 도처에는 대나무 숲이 있는데…'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쉬운 점은 1898년 광주 방문 때의 구체적이고 어떤 특별한 일화가 없다는 것이다.

김구 선생은 1946년 두 번째로 광주를 방문하였고 '백화마을'을 출현시켰다. 광주 대성초등학교에서 열린 환영 강연회에서 당시 서민호(독립운동가) 광주시장이 귀국 동포 전재민(전쟁으로 재난을 입은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말했다. 김구 선생은 여러 곳에서 받은 선물·해산물·육산물·금품 등을 모두 전재민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기증하였다. 서민호 광주시장은 이 선물들을 받아 바자를 열었고 지역 유지들이 그 선물들을 사면서 낸 돈으로 전재민들의 거처인 '마을'이 조성됐다. 김구 선생이 '백 가구가 화목하게 살아라'는 의미로 '백화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한다.

가구당 면적은 4~4.5평으로 아주 좁았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이 딸린 집이었고,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옆집에서 소곤대는 귀엣말까지 다 들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지붕 아래 여러 가구가 마치 마구간처럼 나란히 이어졌다고 '말집'이라 불렀다.

지금으로 보면 백화마을은 아주 남루한 집이다. 하지만 광주천 다리를 지붕 삼아 살고 있던 전재민들에게 이 집은 따뜻한 보금자리 그 이상이 아니었을까?

2011년 환경 정비 사업으로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백화마을의 옛 모습은 사라졌다. 대신 옛 백화마을 자리에 2011년 학동 역사공원이 조성되고, 2015년 10월 25일 광주 백범기념관이 문을 열면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쳤고 자신이 입은 외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던 김구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분야를 넘나드는 잡학 박사들이 국내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펼친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다. 어느 날은 통영과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다뤘는데, 1592년 임진왜란 당시 한산대첩을 성공으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지금도 과학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한 번에 쉬는 공기의 양과 1년에 숨을 쉬는 횟수 등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접근한 어느 물리학자의 답변이었는데 참 놀라웠다. 428년 전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살아 있다면, 김구 선생은 1946년에 광주를 방문하셨으니 고작 74년 전이다.

광주 백범기념관에 오면 74년 전 광주를 방문한 김구 선생의 숨결을 만날 수 있다.

기 고

죽음으로 증명한 진리

고 병 균
수필가

임진왜란이 시작되면서 육군은 연전연패했다. 용인전투에서는 무려 10만 대군의 조선군이 불과 1600명의 일본군에게 일방적으로 패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승리를 거둔 조선의 영웅들이 있다. 1592년 6월 16일의 해유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신각을 비롯해 의병장 곽재우는 5월 24일의 정암진 전투에서, 권율은 7월 8일의 이치 전투와 1593년 2월 12일의 행주대첩에서 이겼다. 순수하게 조선인만을 이끌고 승리했다. 그런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장수가 있다. 임진왜란 최초의 승리자 신각이다. 왜 그랬을까?

한양을 떠나 파천 길에 오른 선조에게 장계가 올라왔다. 김명원이 올린 장계로 '신각이 이양원을 따른다는 핑계를 대고 도망쳤다'는 내용이다.

신각은 부원수 자격으로 도원수 김명원과 함께 한강 방어 임무를 맡았다. 당시 전황을 살핀 그는 물러나서 군사를 재정비하고자 했다. 그러나 김명원이 듣지 아니 하였고, 결국 방어 작전은 실패했다. 부원수 신각은 양주로 후퇴한 뒤 유도대장 이양원, 함경도 병마절도사 이혼과 합류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의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일대인 해유령 근처에서 왜군 70명을 만나 그들을 참살했다. 소규모였지만 조선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귀중한 승리를 거둔 장수다. 이런 장수를 선조는 처형하라고 명했다.

학자들은 김명원이 유순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도원수라는 직책에 충실했고, 전시 행정가로서도 성실하고 유능했으며, 남을 모함하거나 해코지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그랬던 그가 어쩌다가 멀쩡한 장군을 죽게 만들었다. 양심에 가책을 느꼈던 그는 이순신을 살려 낸다. 정유년에 선조는 이순신을 쳐 내려 작정했었다. 그때 이순신의 구명 운동에 팔을 걷고 나섰고, 천만다행으로 이순신은 재기용되었다. 신각과 이순신을 바꾼 꼴이 되었다.

그해 5월 18일 비변사에서는 "신각을 군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청했다. 파천 길에 오른 선조도 머뭇거림 없이 "처형하라"고 명했다.

얼마 후 해유령 전투의 승전보가 날아들었다. 선조는 부랴부랴 선전관을 보내며 "죽이지 말라"고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무슨 일이건 신중해야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당시의 통신 수단으로 가장 빠른 것이 봉화이다.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봉화 전달 시간은 아주 빠르면 2시간, 늦어도 12시간 정도 걸린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런 봉화를 통해 사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랬음에도 일본군은 조선이 미처 대응할 수 없을 만큼 미친 속도로 진격해 왔다.

학자들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예상치 못한 일본군의 침공으로, 패주하는 일선 장수들이 속출함에 따라 강경론이 제기된 시점에 신각이 걸려들었다고, 재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재수의 있고 없음을 마음대로 못하지만 사람들은 재수 좋기를 추구한다. 나의 할머니께서는 선거철만 되면 정화수 떠놓고 두 손을 비볐다. 요즈음으로 말하면 기도를 했다. 재수 좋으라고 그랬다.

그런데 재수 좋은 것 이전에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소소하고 작은 규정이라도 꼼꼼하게 챙기고 빈틈 없이 시행하는 것이다.

곰곰 생각해 보면 신각은 전시 규정을 어긴 것이 있다. 부원수로서 도원수를 수행하는 임무에 소홀했고, "즉시 보고하라"는 시간도 지키지 못했다. 평상시 같으면 눈감아 줄 만한 아주 미미한 사안이었지만 그것이 신각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 빛나는 전공(戰功)마저도 땅 속에 묻히게 했다.

안타까운 이 사건에서 평범한 진리의 엄격함을 깨닫는다. 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그 진리를 신각은 죽음으로 증명했다.

社 說

농어촌 빈집 활용 방안 찾아야

인구 감소로 전남 도내 농어촌 빈집이 갈수록 늘고 있는 반면 도시민들은 살 만한 집을 찾지 못해 농어촌 이주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방치된 빈집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빈집은 1만1357동으로 2018년의 8399동에 비해 3000동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빈집 가운데 철거 대상은 6911동, 활용 가능 대상은 4446동으로 분석됐다. 농어촌 곳곳에 방치된 이들 빈집은 쓰레기와 야생동물 출입, 화재·붕괴 위험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은 최근 5년간 84억여 원을 투입해 6667동을 철거했다.

인구 감소 속에 빈집은 늘고 있지만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세대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도시민들이 거주할 만한 빈 주택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다. 전남 인구는 지난 1월 기준 186만4712명으로 2년 전에 비해 3만7000여 명이 감소한 반면 세대수는 87만2739세대로 같은 기간 3만여 세대가 증가했다. 더욱이 어촌의 경우 '가고 싶은 섬' '어촌 뉴딜 300' 등 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타지에 거주하는 소유주들이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빈집을 내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도시민들이 마땅히 살 만한 집을 구하지 못해 농어촌 정착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전남도와 시군은 농어촌 빈집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빈집을 정비해 귀촌인들에게 거처로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경우 지자체가 매입해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매가나 보상가가 낮아 소유자가 매매나 철거를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 철거 지원 금액을 높이는 등 관련 법규 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두환맞이 너무 요란하지 않게

'5·18 피고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오늘 다시 광주 법정에 선다. 지난해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 재판은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전 씨는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 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고 이에 따라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전 씨의 출석 의사를 밝혔다. 또 부인인 이순자 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전 씨의 광주 재판 참석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5월 단체들은 오늘 법원을 빙 둘러 소복을 입고 마스크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던 '죄수복을 입고 창살에 갇혀 무릎을 꿇고 있는' 전두환 동상도 광주로 옮겨오기로 했다. 동상은 재판이 열리는 오늘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앞에 세우게 된다. 전 씨를 향한 분노의 퍼포먼스라 하겠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두환 씨의 두 번째 광주 법정 출석을 앞두고 "역사의 죄인 전두환은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에게서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광주 시민의 울분과 분노 또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에 하나 과격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일단 지켜보자.

無 等 鼓

'요술쟁이와 생쥐'

올해는 경자년(庚子年). 우리의 설화나 민화 속에 등장하는 쥐는 풍요·희망·기회를 상징한다. 올 초만 해도 적응력이 뛰어나고 영리한 '흰쥐의 해'를 맞았다는 기대로 들떴었다. 그러나 이후 발발한 코로나 19로 올봄은 '빼앗긴 봄'이 되고 말았다.

쥐는 다산·총명·근면과는 다른 이미지로 기호화되기도 한다.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은 표현이 그 예다. '요술쟁이와 생쥐'라는 이솝우화를 보자. 요술쟁이 집에 생쥐 한 마리가 고양이와 함께 살았다. 요술쟁이는 공포에 질린 생쥐를 위해 겉모습을 고양이로 바꿔 주었다. 하지만 생쥐는 이제 개가 무섭다고 징징댄다. 그래 다시 개로 변신시켜 주었더니 웬걸, 생쥐는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섭다고 한다. 실망한 요술쟁이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외양만 바뀌었지 속은 늘 생쥐다. 무엇으로 변한들 소용이 없으니 다시 생쥐가 되어라."

21대 총선에서 여당은 자매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까지 포함해 180석을 차지했다. 87년 체제 이후 유례없는 거대 정당이 탄생한 것이다. 2016년 총선 때부터 이번 총선까지 처음으로 네 번 연속해서 승리를 거뒀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상대 탓에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는 여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어찌 됐든 일각에선 한국 정치 주류가 교체됐다는 분석까지 내놓는다.

세상을 바꾸는 개혁은 과감한 실천이 답이다. '정도전의 시대를 읽다'의 저자 김진섭은 정도전을 이렇게 평한다. '어느 한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이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담은 개혁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새로운 이념과 문화에 의한 변혁을 시도한 인물'이라고. 다시 말해 '격변기의 혁명과 개혁'을 위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른',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 준 인물이라는 것이다.

다시 '요술쟁이와 생쥐'의 우화를 거론하자면, 문제의 실마리는 변화에 있다. 입법·행정·사법 모든 권력을 장악해도 그것은 외견상의 모습일 뿐이다. 안으로부터의 변화와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개혁은 요원하다. 국민들은 언제까지나 표만 제공하는 마법의 요술쟁이가 아니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생쥐 같은 정치인은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한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